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 추진을 위한 협약식」

개 회 사

2023. 10. 5. (목) 10:10 ~ 10:15 (5분)

금융감독원 9층 대회의실

금 용 감 독 원
원 장 이 복 현

※ 본 원고는 현장에서의 발언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I

인사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융감독원 원장 이복현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지난 수 개월간 금융감독원과 은행권이

함께 고민하여 마련한

비대면 금융사고 종합 대응방안을 발표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귀한 걸음을 해주신

윤창현 의원님과 양정숙 의원님,

그리고 이승열 하나은행장(은행연합회 간사은행)님을 비롯한
여러 은행장님들과 조해근 우정사업본부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II

비대면 금융범죄 피해의 심각성 및 국내외 동향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함께

비대면 금융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소비자의 편의성이 높아지고

금융회사의 수익도 증대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 범죄가 증가하고
이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 범죄기법이 갈수록 지능화·정교화되고 있어
일반 이용자들의 노력만으로 대응하기에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미국, 영국 등 해외 감독당국에서는
금융회사가 금융사고 예방 능력을
고도화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최근 판결에서
금융회사의 금융사고 예방노력이 미흡한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Ⅲ 금융감독원의 비대면 금융사고 대응 방향

이러한 사회적 흐름을 고려하여
금융감독원은 은행권과 함께
비대면 금융사고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종합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금번 대응방안은 크게

사고발생 예방을 위한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운영 가이드라인」과,

사고발생 이후에 필요한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으로 구분됩니다.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운영 가이드라인」에서는

모바일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해 실행되는

금융거래의 전 과정에서

금융회사가 더욱 정교하게 금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를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에서는

사고 발생시 소비자의 과실뿐만 아니라

은행의 금융사고 예방 노력 수준을 함께 고려하여

책임이 분담되도록 배상책임의 기준을 설계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준은

은행에게 합리적인 배상책임을 부과하면서도

은행 스스로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는데

동기부여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맹자가 강조한 先義後利(선의후리)의 경영철학에서는
“고객을 먼저 이롭게 하면
이익은 자연스럽게 발생한다.”고 합니다.

금융회사가 빈틈없는 노력으로
금융범죄를 예방해 나간다면
금융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가 쌓여
결국 금융회사의 수익 확대로 (반드시) 이어질 것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 은행권을 시작으로
여전사 등 다른 금융권에도
넓혀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특별히 우정사업본부도 함께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합니다.

「FDS 운영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금융권의 금융사고 예방 노하우를 공유함으로써
우체국 금융거래에서의 금융범죄 예방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범 금융권의 노력에 더하여
금융소비자 스스로도 경각심을 갖고
휴대전화에 각종 개인정보를 저장하지 않고
타인에게 이체 비밀번호를 누설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대책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는
금융감독원과 은행권, 그리고 우정사업본부가
비대면 금융사고 척결을 위해 뜻을 모아
중요한 합의의 첫걸음을 떼는 날입니다.

오늘의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앞으로 금융업권 내에서뿐만 아니라 국회 등에서도
관련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